

코로나 극복 '광산경제백신회의' 닷 올렸다

자치구 단위 전국 최초...지역경제 활성화 집중 시민수당·클라우드 펀딩 등 안전망 확보 주력

광산구 민·관·산·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자치구 단위 전국 최초로 광산경제백신회의를 발족,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협의했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광산구 민·관·산·학 대표 40여명은 청내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극복 광산경제백신회의'를 발족했다. 이 회의는 지역사회 각 계각층 대표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조직한 지역경제 거버넌스다.

기초자치체 단위에서 각계각층 지역대표들이 비상경제사령탑을 만든 것은 광산경제백신회의의 발족이 전국 처음이다. 경제거버넌스의 이름은 감염병 백신 개발에 착안해 경제위기 극복 백신을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발족식에서 참가자들은 '마음을 잇는 경제, 손에 잡히는 정책'으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위기 대응·극복의 상징으로 통하는 하상용 광주창업지원네트워크 하상용씨를 상임대표로,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배홍석 광산구의회 의장을 고문으로 추대했다.

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

비상 대응,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 '경제위기 극복 범시민운동' 실천을 목표로 삼아 4개 분과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지역경제 중간조직인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에 맡기기로 했다.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지금까지 6탄의 경제백신시리즈를 연달아 발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증진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그 첫 사업은 '광산경제백신펀딩'이다. 이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도와 경제 활성화를 단초로 삼자는 취지로, IMF 국난극복 국민운동의 지혜를 거울삼아, 정부지원이 미치지 않는 경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충 분담과 협동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공동체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펀딩은 투게더광산나눔재단이 맡아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고, 5월 말까지 10억원을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일 기준 40개 기업·개인이 2억원 상당의 현금·물품으로 펀딩에 참여했다.

특히, 김 정장은 급여의 30%, 4개월분을 기부하며 펀딩에 최초 참여했고, 광산구의원들도 40번째 기부로 동참하며 지역사회에 힘을 실었다.

광산경제백신 3탄으로 마련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우체국 쇼핑물 '광산구브랜 드관'도 인기다.



광주 광산구는 최근 '광산경제백신회의'를 발족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광산구청 제공

지역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 지원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준비하던 광산구기업주치의센터는, 지난달 13일부터 우체국 쇼핑몰에 광산구브랜드관을 열어 광산구 소상공인을 무료 입점시키고 있다. 40여개 업체가 입점했거나 입점 준비중이고,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여기에 20% 할인특가전, 배달비 지원 등도 더할 계획이다.

광산경제백신 4탄은비상경제상황에서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광산형 시민수당'이다. 시민수당은 코로나19 여파로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놓인 시민 600명에게 지역 방역, 공공 봉사, 소상공인

지원 등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정한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둔 사업이다.

최근 주목받은 행사는 지난달 29일과 지난 7일 남부대에서 두 차례 열린 '승차구매 광산 친환경 로컬마켓' 사업이다. 개학 연기와 구매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의 농축산물을 판매해 생산자를 살리고,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는 이 로컬마켓은, 승차판매(drive-thru) 방식으로 진행돼 시민의 큰 호응 속에서 진행됐다.

민·관·산·학의 참여·협력으로 탄력

을 받아가고 있는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이밖에도 경제위기 타개 방향을 제시하는 '경제특강과 경제토론회'를 백신 6탄으로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소상공인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신협·새마을금고 등 지역금융과 위기대응 금융상품을 출시하는 방안 등도 준비하고 있다.

김삼호광산구청장은 "광산경제백신회의는 연대와 협력, 믿음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고, 앞으로도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지역사회에 전파하는 동시에 실현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윤영봉 기자

이제는 노인시설팀장 '옥조근정훈장' 영예

광주 광산구는 최근 이젠노인시설팀장이 공직자 최고의 영예인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삼호 광구청장은 지난 7일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된 시상식을 대신에 이 팀장에게 훈장을 전달했다. /윤영봉 기자

이 팀장은 한전·SK텔레콤·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과 1인 가구의 전력·통신 사용량 데이터를 분석해 고독사를 예방에 기여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6회를 맞은 올해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이 팀장을 포함해 전국 80명의 공직자에게 수상의 영예를 안겼다.

'민생경제 지원' 2차 추경 8,243억 제출

광주 광산구가 최근 일반회계 777억원, 특별회계 39억원 규모로 총 816억원이 증액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 8,243억원을 광산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3월 1차 긴급추경 740억원에 이은 이번 광산구 추경의 주요내용은 연 매출 1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3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경영안정지원금' 38억원, '중소기업 특별보증기금출연금' 5억원 등이

다. 여기에 공연활동이 막힌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지역예술인 활력 콜라보 콘서트' 1억원 등이 추가됐다.

이밖에도 광산구는 추경안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71억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60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27억 원, 기초연금 26억 원, 신촌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 10억 원 등 긴급 현안사업도 일부 반영했다.

진흥고 학생들, 1987 이한열 선배 만나다

'우리동네 오월역사' 행사 진행
광주 광산구는 지난 9일 '신창마을교육네트워크'가 진흥고 학생과 마을교육활동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동네 오월역사, 이한열을 찾아라'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 역사의 삶을 바탕으로 5·18 40주년을 기념하고, 광주오월정신을 청소년과 시민들이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한 자리다.

진흥고 내 이 열사 추모공원에서 진행된 추모식으로 시작한 이번 행사는 청소년 중추단 '신창SWA오케스트라'의 헌정 연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추모식에 이은 강연에서 이경란 이한열 기념관장은 기념관에 보관하고 있는 이 열사의 유품과 기록물 등 자료를 소개하고, 동료로 함께 했던 일화들을 덧붙이며



광주 광산구는 최근 진흥고 학생들과 함께 '우리동네 오월역사, 이한열을 찾아라' 행사를 진행했다.

/광산구청 제공

1980년 5월에서 1987년 6월로 이어지는 민주항쟁에서 기억해야 할 사람들과 그들의 정신에 대해 말했다.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신창동에서는 청소년·시민 참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이 6월까지 이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이 열사의 삶을 담은 인형극 만들기, 그래픽 스토리보드 제작 등으로 구성되었고, 그 결과물은 6월 전시·체험 행사에서 소개된다. /윤영봉 기자

지투리 소식

골목상권 블랙프라이데이 공모

광주 광산구가 코로나19 극복과 골목상권 소비촉진을 위한 '골목상권 블랙프라이데이' 공모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소비 위축 장기화를 해소하고 상인회 등 골목상권 경제공동체들의 자율 활동 등 이벤트와 소비·문화 행사 등을 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모에는 골목상권 위생 증진, 활인 참여 지도 제작, 착한소비운동 실천, 활인상품 공동메뉴판 제작·홍보 등 코로나19로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내용의 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신청 대상은 골목상권 상인단체나 골목상권에 관심 있는 주민, 사회단체, 상인 5인 이상 모임 등 골목상권 안팎에서 활동을 이어갈 공동체다.

영산강 등 55곳 친환경 생태방역

광주 광산구가 천적인 미꾸라지를 이용해 모기 유충을 없애는 친환경 생태방역에 나섰다.

13일 광산구에 따르면 이번 생태방역은 작은 하천과 저수지, 습지 등에 미꾸라지를 방류해 모기 유충을 없애는 동시에 수질도 정화하는 친환경 해충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꾸라지 1마리는 하루에 모기 유충 1,100여 마리를 잡아먹는다고 알려져 있다.

광산구는 9개 민간방역 소속업체와 함께 풍영정길 주변 영산강, 어룡동 박산마을 습지, 풍영정천, 신창·기룡 저수지 등 55개소에 260kg의 미꾸라지를 방류했다.

'이웃갈등 조정자' 수강생 모집

광주 광산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대표조직 대표, 관리소장, 마을활동가, 희망주민 등을 대상으로 '광산구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양성교육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중간소음·주차·흡연 등 아파트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이웃갈등 자율조정위원회' 조성 및 '자율협약안' 마련 등으로, 주민 스스로 예방·해결하는 시스템 도입을 주도하는 조정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광산구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에게 '아파트 이웃갈등 조정자' 자격을 부여한다.

아울러 교육 이수자가 자기아파트에서 이웃갈등 자율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협약안' 마련 주민회의를 열면 회의 진행 조력자인 퍼실리테이터도 지원한다.



KOSPI 상장기업 **동아에스텍**의 새로운 이름,

다스코 [DASCO]

세라믹 전문기업 **동아세라믹**의 새로운 이름,

세라코 [CERACO]

새롭게 출발하는 **다스코(주)**와 **세라코(주)**는 축적된 기술력과 고객신뢰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R&D를 통해 창조와 혁신을 선도하는 Total Solution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스코(주)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로길 26-2
Tel : 061)370-2114, Fax : 061)370-8195
도로안전, 테크플레이트, 단열재, 외장재, 태양광

세라코(주) 전남 나주시 봉황면 농공단지길 134-7
Tel : 061)331-9000, Fax : 061)331-9003
세라믹벽돌, 친환경, 수처리, 도로안전, 테라코타



태양광발전소 사업 관련 모집

1. 태양광발전소 사업주 모집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 태양광발전소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설비투자금이 없으신 분

2. 태양광발전소 영업대리인 모집

- 태양광발전소 부지 섭외가 가능한 분
- 태양광발전소 사업주로부터 시공을 위탁 받으신 분
- 대표 EPC에사가 필요하신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ONE-STOP TOTAL SOLUTION

태양광사업의 A to Z, 프로젝트 개발부터 EPC, O&M까지 접수문의 : 담당자 02)3440-7842, jykang@dasco.kr